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60년전에 날아오른 천리마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 진행
평양지하철도



# 조선

주체110 (2021) 4
(777)

## 차 례 CONTENTS

### 특별소식



### 기념편집



### 오늘의 조선



### 사진소개



### 체육



### 력사



---


편집: 신재철, 김국철, 김정철, 김금성,
서철남, 김규성, 유충일, 승 룡


---



2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38 문수지구의 병원촌



66 조종의 산 백두산



48 평양지하철도



80 조선의 정통무도 태권도



54 산물고기료리로 소문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86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개성의 력사유적들

#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 평양시에는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일떠서게 된다.

올해에 진행되는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이 3월 23일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과 함께 착공식에 참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건설자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으로 충만된 열정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이 터치는 열광의 환호와 우렁찬 함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기발을 몸소 지휘성원들에게 수여하시였다.

착공식에서는 국방상 조선인민군 차수 김정관동지가 건설자들을 대표하여 결의를 다지였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가 진행된데 이어 드넓은 건설장에서는 전체 건설자들의 기세가 충천한 속에 수많은 굴착기들이 우렁찬 동음을 울리며 일제히 공사에 착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존엄높은 당대회의 이름으로 인민들과 한 약속을 실행하는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건설투쟁에 용약 진입한 건설자들을 뜨겁게 격려해주시였다.

#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서 하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연설

영예로운 수도건설에 떨쳐나선 전체 건설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오늘 우리는 우리 수도건설력사에 또 하나의 뜻깊은 리정표를 새기는 영광을 지니게 됩니다.

올해초에 있은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는 5개년계획기간에 전국적으로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 우리 수도에만도 5만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며 이를 위해 매해 1만세대씩 건설할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당대회가 결정한 무겁고도 거창한 투쟁과업들중에서도 가장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혁명사업이 오늘로써 드디여 본격적인 시발을 떼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입니다.

당과 정부는 수도의 살림집부족세대수를 장악하고 그 해결대책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이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최중대과업으로 간주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이 막중한 과제를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는 원칙에서 건축발전구상과 건설정책을 재확정하였습니다.

건설방향과 순차를 다시 정하고 국가건설총예산의 많은 몫이 살림집건설에 지출되도록 하였으며 그 실행을 위한 작전과 준비사업을 한데 기초하여 당 제8차대회에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정책화한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가 펼치는 대규모의 살림집건설작전은 어떤 경제적리득을 위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입니다.

오늘을 출발점으로 하여 앞으로 당창건 80돐이 되는 2025년까지 해마다 1만세대씩 5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중에 있는 1만 6, 000여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나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가 철저히 해결될것입니다.

수도에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통이 크게 건설하는것은 중첩된 난관을 맞받아 기세차게 전진하는 우리 국가, 우리 인민의 불가항력적인 투쟁기상을 떨치는데서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 아는바이지만 평양시에 올해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매우 힘들게 락착되였습니다.

사실 도전과 장애가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건설을 하는것 자체가 상상밖의 엄청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올해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5년전 려명거리건설을 시작할 때와도 완전히 다른 형편에서 진행되며 더우기는 그 몇배나 되는 작업량을 단시일내에 해제껴야 하는 방대한 공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수도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여있고 당대회의 결정을 드팀없이 관철하기 위한 첫해의 중대한 정치적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거창하고 훌륭한 대건설을 벌린다는 뿌듯한 자긍심과 배짱이 있으며 이 아름찬 건설과제를 얼마든지 실행할수 있는 자신심과 경험, 밑천이 있습니다.

아직은 건축형성안에서나 볼수 있는 특색있는 고층, 초고층살림집들이 이해말에 가서 이 송신, 송화지구를 꽉 채우게 되면 우리 국가의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창조력이 다시한번 크게 과시될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의 주체건축은 또 한단계 비약하고 발전하게 될것이며 자기 식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새 생활을 창조하고 꾸려나가는 우리의 건설은 더 큰 전진력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록색건축, 건식공법과 같은 선진적인 건축기술, 건설공법들이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도입되고 건설장비들과 건재들을 생산하는 공업기지들의 토대가 더욱 확대강화될것이며 우리의 건설부대들과 건설자들은 보다 강력하고 능숙해질것입니다.

오늘의 대건설은 수도의 건설력사에 있어서도 기념비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은 수도 평양의 도시구획을 동서방향과 북쪽방향으로 넓히면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새 거리들을 일떠세우는 력사적인 건설사업입니다.

평양시의 송신지구와 송화지구, 서포지구, 금천지구, 9. 9절거리지구에 해마다 차례차례 1만세대의 살림집들과 이채로운 공공건물들이 솟아오르면 우리 국가의 수도는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될것이며 이것은 가장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21세기 20년대를 상징하는 뜻깊은 기념비로 될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떠세우는 새 거리들에서 살게 될 시민들과 우리 후손들은 최악의 도전을 박차고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거대한 건축군을 떠올린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을 영웅적인 세대로 두고두고 추억하게 될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대건설은 영광의 시대를 력사에 기록해놓는 위대한 사업입니다.

동지들!

건설은 시대가 도달한 정신적높이와 국력의 집합체이며 문명과 발전에로의 큰걸음입니다.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들고 부강과 번영에로 나아가는 오늘 수도 5만세대 살림집건설장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상징하는 주되는 공격전선으로 될것입니다.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통하여 우리는 수도의 면모를 또 한번 개변시킬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을 단계별로 확신성있게 승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열어놓게 될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방대한 대공사를 작전하면서 건설의 주역을 맡게 될 주력부대들을 강력하게 편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였습니다.

우리 당중앙이 5만세대 살림집건설을 결정하면서 제일먼저 믿은것은 두말할것없이 당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무력입니다.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견결히 보위하는 국가방위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면서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는데서도 언제나 큰 몫을 말아 제껴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건설전역들과 피해복구전구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친 인민군대가 기본전장을 타고앉아야 전반적인 건설대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인민군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나는 우리 장병들이 창조적인 건설투쟁에서도 자기의 전투적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과 인민의 기대에 어김없이 철저한 관철로써 보답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시기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한 중요건설장들에서 뚜렷한 공훈을 세운 수도건설위원회와 속도전청년돌격대, 혁명사적지건설국, 대외건설국을 비롯한 사회의 주요 건설부대들도 이번 대건설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대건설전투의 성과여부는 직접적담당자인 지휘성원들과 인민군군인들, 건설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건설정책과 지도는 최종적으로 매 건설일군들의 창조적열성과 노력에 의하여 현실화되며 당은 우리 건설자들의 열렬한 애국심과 재능을 무엇보다 크게 믿고있습니다.

설계부문앞에 나서는 임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설 그 자체가 고도의 창조적사업으로 되고있고 건축물들이 조형화, 예술화, 다기능화, 지능화되고있는 오늘 설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습니다.

# 5만세대 살림집건설로 우리 수도를 다시한번 웅장하게 변모시키자

설계부문에 대한 우리 당의 요구는 설계도면의 선 하나, 점 하나에도 우리 시대의 사상과 넋, 약동하는 기상이 반영되고 세계와 당당히 겨루는 높은 리상과 문명수준이 비끼게 하는것입니다.

설계일군들은 이미 확정시달된 거리형성안과 설계방안대로 모든 대상설계를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만점짜리로 작성하며 해당한 설계도면들을 시공부문에 시급히 넘겨주어야 하겠습니다.

시공을 맡은 모든 건설단위들은 건설작업에 지체없이 착수하여 일정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며 상반년안으로 담당한 건축물의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야 하겠습니다.

모든 건설부대와 단위들에서는 시공의 질을 높이는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건설작업의 전 공정을 질보장으로 일관시켜야 하겠습니다.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과 국가앞에, 인민들과 후대들앞에 그리고 력사앞에 자기의 충성심과 애국심, 량심을 검증받는다는 자세와 립장을 항상 견지할 때 모든 건축물들이 명실공히 우리 시대의 훌륭한 창조물로 될수 있습니다.

건설감독부문의 역할을 높여 당과 국가의 건설정책, 인민의 요구와 리익, 건축의 안전성을 철저히 준수,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만세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제때에 보장하여야 합니다.

세멘트와 철강재, 각종 건재품들과 설비들의 생산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맡겨진 생산과제를 제기일에 원만히 수행하는것으로써 수도의 살림집건설성과를 담보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수를 비롯한 수송부문에서도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려 수도의 대건설장과 철강재, 건재생산기지들에 요구되는 물동을 신속히 실어날라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상공세를 앞세워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의 충성심과 애국심,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건설시작부터 마감까지 온 건설장이 충천한 기세로 들끓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중을 보람찬 건설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할뿐아니라 오늘의 거창한 수도건설전투장이 곧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용감한 실천가들, 씩씩한 사회주의근로자들을 키워내는 격렬한 혁명전구, 훌륭한 학교로 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건강과 생활을 잘 보살피고 돌보는것을 최대로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요구에 맞게 건설전역에 방역초소와 시설들을 빈틈없이 갖추어놓고 방역규정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기풍을 수립할것이며 각종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자들이 불편없이 작업에 전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군인들과 건설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해당 단위에만 맡겨둘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보장체계를 강화하여 매 건설전투원들에게 규정된 공급량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오늘은 우리가 첫삽을 뜨지만 이제 몇개월후이면 이 지역에 새로운 인민의 거리, 우리모두가 자랑으로 여기게 될 희한한 대건축군이 솟아오르게 될것입니다.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위대한 우리 인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펴게 될 리상거리건설에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보다 더 보람차고 행복하고 영예로운 일은 없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래일을 위하여,

그속에서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 우리의 부모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당 제8차대회 결정의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우리모두 힘차게 투쟁해나갑시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 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명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히시고 현지를 돌아보시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의 중심부를 감돌아 흐르는 경치좋은 보통강반을 따라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형성하고 다층, 소층살림집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이 지구를 특색있게 변모시킬 구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훌륭한 자연경관이 살아나게 건축물들의 설계와 원림설계를 잘하여 도시의 특성과 매력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우리 나라 주택구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훌륭히 건설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보통문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 800세대 건설은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는 별도로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건설을 내밀어 올해중에 완공하여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고있는 각 부문의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도시건설을 건물과 자연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생활공간과 생태공간을 과학적으로 배치하여 사업과 휴식, 교통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새로 일떠세울 호안다락식주택구형성안들을 보아주시면서 건설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생산한 려객뻐스시제품을 료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생산한 려객뻐스시제품을 료해하시였다.

수도의 려객운수문제를 두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속에서도 평양시민들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대책을 세울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수도교통망발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려객운수종합기업소와 평양뻐스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짧은 기간안에 교통뻐스와 2층뻐스시제품을 개발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청사에서 려객뻐스시제품을 보아주시였다.

려객뻐스에 오르시여 기술적특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시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생산토대에 의거하여 뻐스들을 만들어 려객운수수단문제를 풀겠다고 결의해나선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도시미화에 어울리며 인민들이 리용하기에도 편리한 려객뻐스를 대량생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수도려객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시민들의 교통상편리를 최대한 도모하는것은 수도운영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며 인민들의 사회적 및 문화적생활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려객뻐스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시며 년차별 생산목표를 제시하여주시고 실행대책을 세워주시였다.



# 자주정치의 원로

올해 4월 1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1912년-1994년)의 탄생 109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조선인민과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시대의 지도적지침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해 한생토록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생애의 전기간에 106차에 걸쳐 52만여㎞에 달하는 외국방문의 로정을 이어가시며 16개 나라를 국가방문하시였다. 세계 130여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을 비롯하여 연 7만여명의 외국손님들을 만나주시면서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진행하시였다.

국제사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세계정치의 원로로 높이 칭송하였다.

100여개 나라의 480여개의 거리와 기관, 단체들에 그이의 존함을 모시였으며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들에서 그이께 370여개의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드리였다. 그이께서 170여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각계층 인사들로부터 받으신 선물은 7만여점에 달한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글 한수영



# 뜻깊은 4월을 더듬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고 존경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중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초대대통령 수카르노(1901년-1970년)도 있었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주체53(1964)년 11월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주실것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반둥회의[주체44(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진행된 제1차 아시아, 아프리카회의] 10돐 기념행사를 전후한 시기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다.

주체54(1965)년 4월 10일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쟈까르따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수카르노대통령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환영의식에서 **김일성**수상각하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기를 고대하였다고, 사정이 허락되지 않아 오시지 못하였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고 하면서 1억 수백만 인도네시아인민이 모두 **김일성**수상각하의 도착을 열렬히 환영하고있다고 연설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답례연설에서 이번에 수카르노대통령각하의 친절한 초청에 의하여 인도네시아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친선의 정을 안고 당신들의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하였다고, 인도네시아공화국을 방문하여 인도네시아인민과 상봉하려는것은 나의 오래전부터의 념원이였다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인도네시아인민이 쌓아올린 고귀한 투쟁업적과 그 영용한 투쟁모습을 보게 될것이며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 인도네시아공화국훈장 제1급을 수여해드리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의식에서 수카르노대통령은 **김일성**수상각하께서는 인도네시아인민과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벗이며 자신의 벗이라고, 조선인민이 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건설을 위한 인도네시아인민의 투쟁에 직접적인 도움으로 된다고 하면서 자기 나라의 최고훈장을 드리였다.

이어 진행된 연회의 환영연설에서도 수카르노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4(1965)년 4월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수카르노로부터 **김일성**화를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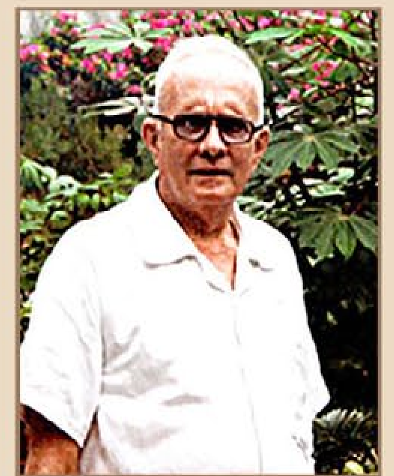
주체54(1965)년 4월



김일성화



보고르식물원



**김일성**화육종가인 식물학자 씨. 엘. 분트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은 벗이며 전우이라고, 두 나라 인민은 반제투쟁에서뿐아니라 번영하는 새 사회 건설에서도 전우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수상각하께서 좀더 오래 머물러주시기를 바란다고 진정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답례연설에서 조선인민과 인도네시아인민은 오래전부터 굳은 친선의 뉴대로 련결되여있으며 다같이 제국주의, 식민지통치로부터 장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해방을 쟁취하였다고, 오늘도 두 나라 인민은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의 공동전선에서 함께 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인도네시아인민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다음날인 4월 11일 서부쟈와주소재지인 반둥시를 방문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수카르노대통령은 인도네시아림시인민협상회의에 참석하시도록 초대하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인도네시아공화국의 내정문제를 토의하는 회의에 참가하시는데 대하여 굳이 사양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번 협상회의는 수상각하의 방문날자를 맞추어 조직하였는데 주인공이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고 하면서 그이의 회의참가를 거듭 요청하였다.

수카르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네시아에서의 방향전환으로 세상에 알려진 정치연설을 하면서 먼저 이 자리에는 유명한 자력갱생의 창시자이시며 자립경제건설의 대담하고 성공적인 실천가이신 존경하는 **김일성**수상각하께서 참석하시였다고, 우리모두 열렬한 박수로 환영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김일성**수상각하의 현명한 령도하에 조선인민은 자립적민족경제를 튼튼히 건설하여놓았기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 어떤 세력에도 예속되여있지 않다, 인도네시아도 조선의 경험을 본받아 조선처럼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지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월 13일 수카르노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을 《인도네시아의 꽃밭》으로 자랑높은 보고르식물원으로 안내하였다.

그날의 참관은 다른 나라의 국가수반들을 위한 의례적인 참관행사가 아니라 자신의 가장 친근한 벗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최대의 성의를 다해 준비한 희귀한 명화를 그이께 올릴것을 결심한 수카르노대통령이 이미전부터 준비해온것이였다.

야외수목원에 이어 식물원의 화초원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한 꽃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고 꽃잎을 만져보시며 꽃이 아주 아름답고 향기도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리고 꽃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는 훌륭한 꽃을 보여주어 대단히 감사하다고 하시며 이곳 원예전문가들의 수고도 헤아려주시였다.

바로 이때 수카르노대통령은 깊이 생각하고 결심한 문제를 터놓으면서 수상각하의 사상은 위대하며 세계를 움직이시기에 수상각하께서는 온 세계를 가지고계시는것이나 같다고, 그래서 이 아름답고 진귀한 꽃에 수상각하의 존함을 모셔 **김일성**화로 부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굳이 사양하시였으나 수카르노

인도네시아종합대학 명예공학박사칭호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4(1965)년 4월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였을 때 받으신 훈장과 선물들



인도네시아공화국훈장 제1급
주체54(1965)년 4월 10일



은식사도구일식, 은꽃병
주체54(1965)년 4월 15일





동종, 은종
주체54(1965)년 4월 15일



나무조각 《독수리신》
주체54(1965)년 4월 15일

대통령은 존경하는 각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이미 많은 업적을 이룩하시였다고, 이 꽃에 수상각하의 존함을 모시는것은 인류의 념원이라고 거듭 말씀드렸다.

**김일성**화는 이렇게 세상에 출현하게 되였다.

4월 15일 이른아침 탄생일을 맞으신 위대한 수령님께 첫인사로 친서와 꽃바구니 등을 선물로 보내드린 수카르노 대통령은 가족들과 그이를 축하방문하여 축원의 인사와 함께 지성어린 선물을 드리였다.

이날 국가궁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인도네시아종합대학 명예공학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4월 17일 반둥회의 10돐 기념행사에 참가한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석상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주악하게 한 수카르노 대통령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자기도 잘 알고 전체 인도네시아인민이 부를줄 아는 노래라고 하면서 **김일성**수상각하께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것처럼 이 노래도 세계적인 명곡이라고 하였다.

인도네시아에 새겨진 뜻깊은 4월의 일화들은 오늘도 두 나라 인민들속에서 전해지고있다.

글 오해연

# 승용차 《지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련맹공산당(볼쉐비크)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이. 웨. 쓰딸린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내각수상이 주체39(1950)년 10월 26일에 드린 선물



이전 쏘련의 국가지도자 이. 웨. 쓰딸린은 조선전쟁(1950. 6－1953. 7.)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업과 안녕보장을 위하여 신형방탄승용차를 특별히 마련하였다.

# 울라지보스또크에 새겨진 친선의 자욱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상봉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회담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와 로씨야련방 대통령 뿌찐사이의 상봉이 주체108(2019)년 4월 로씨야련방 울라지보스또크시에서 진행되였다.

조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새시대와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로씨야련방을 공식친선방문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뿌찐대통령은 바쁜 정치일정속에서도 시간을 내여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강도시에까지 와서 친절히 맞이하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사이에 격의없는 친근한 감정속에서 진행된 단독회담과 회담에서는 각기 자기 나라의 형편이 통보되고 호상 리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이 합의되였으며 당면한 협조문제들이 진지하게 토의되고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환영하는 연회에서 뿌찐대통령은 두 나라 친선의 력사와 선대수령들의 뜻깊은 상봉들을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로씨야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동북아시아지역전반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호상 협력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뿌찐대통령은 계속하여 국제사회와 모든 관심있는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 반도와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번영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례연설에서 뿌찐대통령이 친절히 초청해주고 온갖 성의를 다하여 뜨겁게 환대해주고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고 두 나라 인민은 지난세기 항일대전의 공동의 투쟁속에서 전우의 정으로 굳게 결합되였으며 영용한 붉은군대장병들은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더운 피를 아낌없이 바쳤다고 하시면서 조선인민은 년대와 세기가 바뀌여도 조선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로씨야인민의 아들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위훈을 잊지 않고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께서 력사적인 첫 상봉에서 호상관심사로 되고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신뢰적이며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고 훌륭한 친분관계를 쌓으신것은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뉴대를 일층 강화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방문기간 태평양함대 전투영광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91(2002)년 8월 로씨야의 원동



지역을 방문하시던 나날에 다녀가신 울라지보스또크시내의 《레스나야 자임까》식당에서 연해변강장관이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식당정문에 모셔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적현판을 보시면서 형제적로씨야의 연해변강벗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정히 간직하고 오늘도 길이 전해가고있는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식당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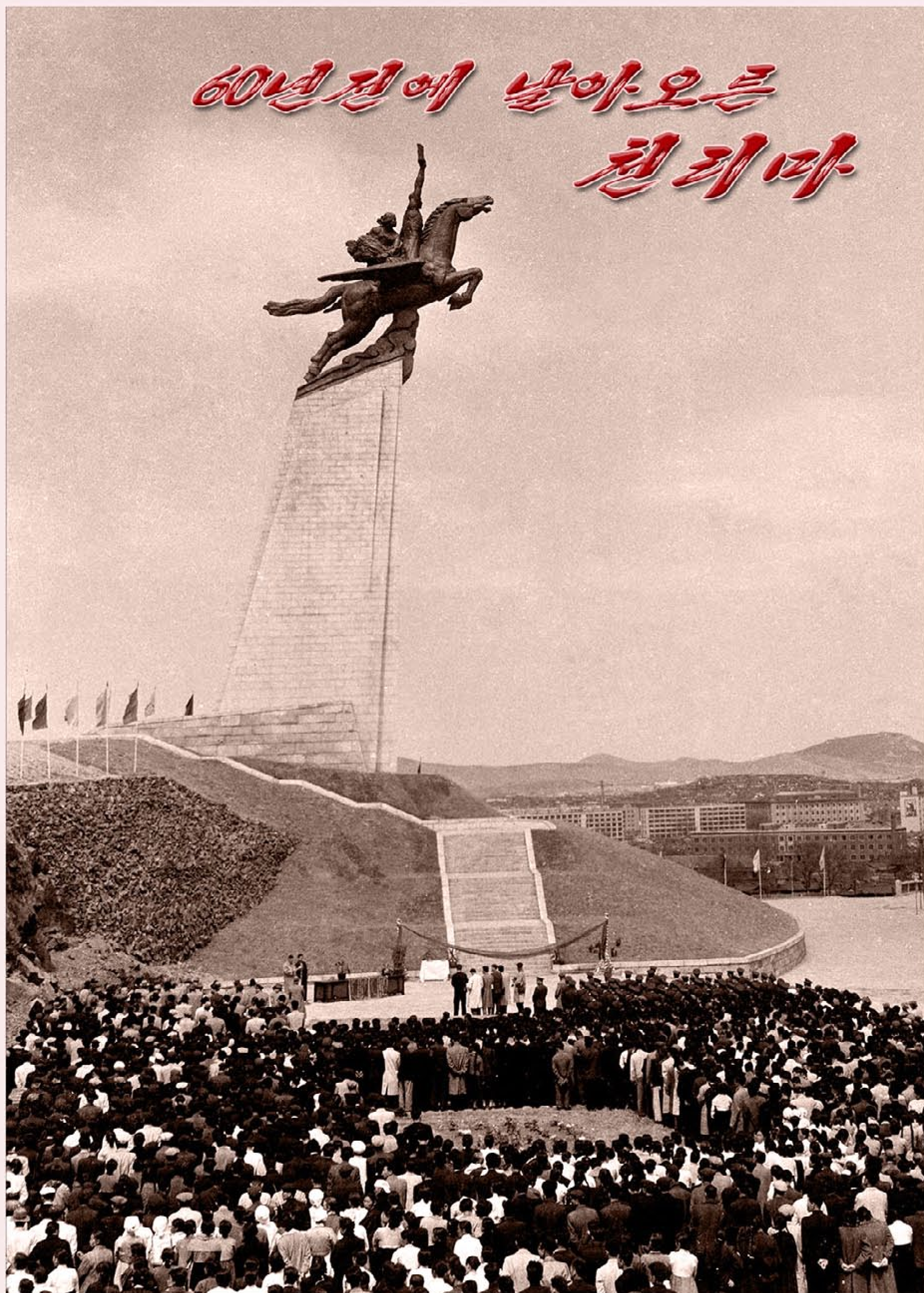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와 로씨야 정부와 인민의 각별한 관심과 극진한 환대속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은 조로친선의 력사에 빛나게 기록되였다.

글 염성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환영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각하께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주체108(2019)년 4월




주체50(1961)년 4월 15일 천리마동상제막식이 있었다.



천리마동상제막식에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 4월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천리마동상이 건립된 때로부터 60년이 흘렀다.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1리는 약 393m)씩 달리는 준마라는 뜻으로서 옛사람들이 매우 빠른 대상을 상징적으로 일러온 말이다.

1950년대 후반기는 조선에서 나라안팎의 매우 긴장하고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거대한 비약과 혁신이 이룩된 시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45(1956)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한다면 높이 세운 인민경제계획을 얼마든지 수행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어려운 때일수록 오직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의거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는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기적을 낳았다.

강선제강소(당시)의 로동계급은 자기들을 혁명적 대고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에 강철증산으로 보답할 맹세를 다지고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그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설비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였으며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하고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편을 밀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천리마대진군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추켜든 강선로동계급의 성과에 뒤를 이어 전국의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천리마를 탄 기세로 달리자!》**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대고조를 일으켜나갔다.

김책제철소(당시)의 로동자들은 년산 19만t능력의 설비로 27만t의 선철을 뽑아내고 황해제철소(당시)에서는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대형용광로를 일떠세웠다.

#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강선의 로동계급은 주체45(1956)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6만t밖에 생산할수 없다고 하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강선은 천리마대진군운동의 첫 봉화를 추켜든 력사의 고장으로 되였다.



살림집건설에서 14분만에 한세대씩 조립하는 평양속도가 창조되였다.

5개년계획의 첫해인 주체46(1957)년 공업생산계획은 117%로 넘쳐 수행되였으며 공업생산은 전해에 비하여 144%로 장성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알곡생산계획을 112%로 넘쳐 수행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나는 과정에 위대한 천리마운동이 발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더욱 높여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축성을 끝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하여 금속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30만~40만t능력의 용광로를 세웠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철강재를 모두 자체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기계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소극성, 보수주의를 짓부시면서 30여일만에 《천리마》호뜨락또르를, 40일만에 《승리-58》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되는 사이에 8m타닝반과 3000t프레스, 《천리마》호굴착기, 《락원-1》호대형양수기, 《붉은별58》불도젤을 제작하였다.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계가 기계를 낳고 공장이 공장을 낳는 기적이 창조되였으며 한해사이에 계획외에 1만 3 000여대의 공작기계를 더 생산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혁명적대고조는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들에서도 일어났다.

농업부문에서 100만정보의 관개면적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불과 여섯달동안에만도 9 900여개의 관개시설이 완공됨으로써 37만 7 000여정보의 관개면적이 늘어났다.

전력공업부문에서 장진강발전소가 새로운 기술에 토대하여 복구되고 장자강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발전소들과 중소규모의 발전소들이 일떠섰다.

주체적인 비날론공업이 창설되고 사회주의건설의 천리마속도를 상징하는 비날론속도, 평양속도가 창조되였다.

평양시에서는 7 000세대분의 자재와 자금으로 2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철길건설자들은 3~4년이 걸려야 한다던 해주-하성사이 80여㎞의 넓은철길부설공사를 단 75일동안에 완공하였다.

전국의 모든 시, 군에 한개이상의 지방산업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한 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불과 3~4개월동안에 1 00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생겨나고 한해남짓한 기간에 그것이 2 000여개로 늘어남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의 절반을 지방공업이 담당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 나라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주체47(1958)년의 공업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140%, 주체48(1959)년에는 그 전해에 비하여 또다시 153%라는 놀라운 속도로 장성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전국의 수백만 근로자들의 혁명운동으로 되였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조선에서의 천리마운동을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결부시키면서 조선을 《천리마조선》으로 격찬하였다.

천리마운동이 한창이던 주체48(1959)년 4월 1일 모란봉청년공원건설장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수대언덕우에 시대를 상징하는 기념탑을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동상은 말 같은것이 좋겠다고 그 대상까지 명확하게 밝혀주시였다.

이해의 11월 17일에는 평양시건설전망계획과 함께 조각가들이 창작한 천리마동상초안들을 보아주시였다.

초안들이 가지고있는 부족점들을 지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해결방도를 밝혀주시면서 천리마에 날개를 달고 말을 한필로 하여 남녀가 타되 남자는 붉은 편지를 들고 앞에 타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만약 한사람만 태우면 먼 후날 우리의 후손들이 어느 영웅의 동상같이 생각할수 있으니 로동자를 형상한 남자를 앞에 앉히고 농민을 형상한 녀자를 뒤에 앉히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이르시였다.

주체49(1960)년 2월말 창작가들이 작성한 3개의 형성초안을 다시금 보아주시면서 매 초안의 좋은 점과 부족점을 포착하시고 하나로 완성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3월초에는 원형과 꼭같은 크기로 모형을 만들어 세워놓고 다시한번 보자고 그리고 인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하시며 동상제작의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까지 밝혀주시였다.

그해 6월 10일 모란봉청년공원을 돌아보려고 나오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천리마동상의 모형을 보아주시면서 더 크게 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천리마동상의 구상과 초안으로부터 그 위치와 크기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조선인민의 혁명적 지향과 기상이 완전무결하게 반영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는 동상창작가들과 건설자들속에서도 천리마의 속도가 창조되게 하였다.

조각가들은 6개월은 실히 걸려야 하는, 당시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마상인 동상의 원형제작을 40일동안에 할것을 결의하고 떨쳐나 36일만에 끝내였으며 건설자들도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천리마의 속도로 시공작업을 다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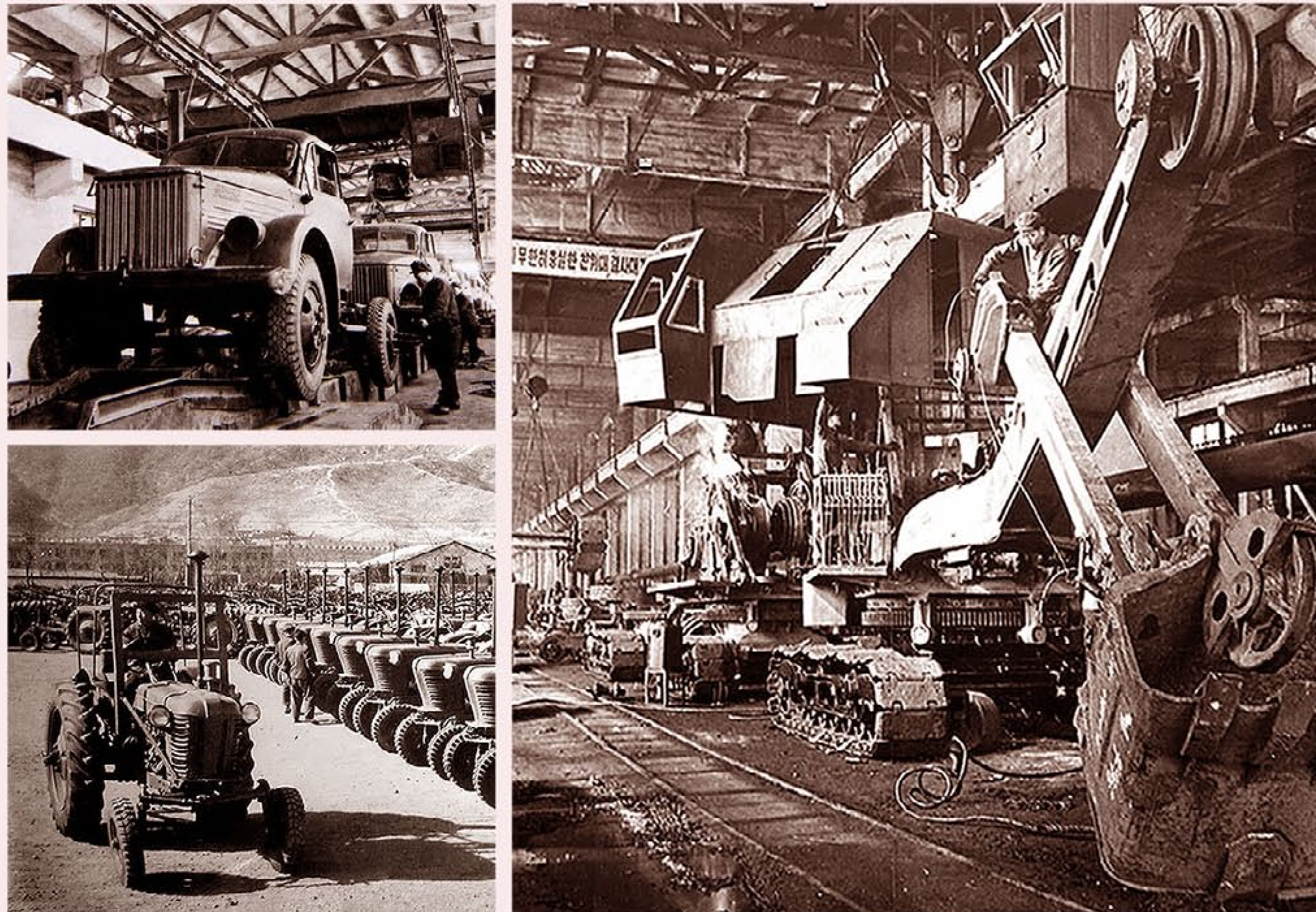
마침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9돐이 되는 주체50(1961)년 4월 15일 천리마동상제막식이 진행되게 되였다.

경사스러운 명절의 아침부터 만수대언덕과 모란봉일대는 군중들로 차고넘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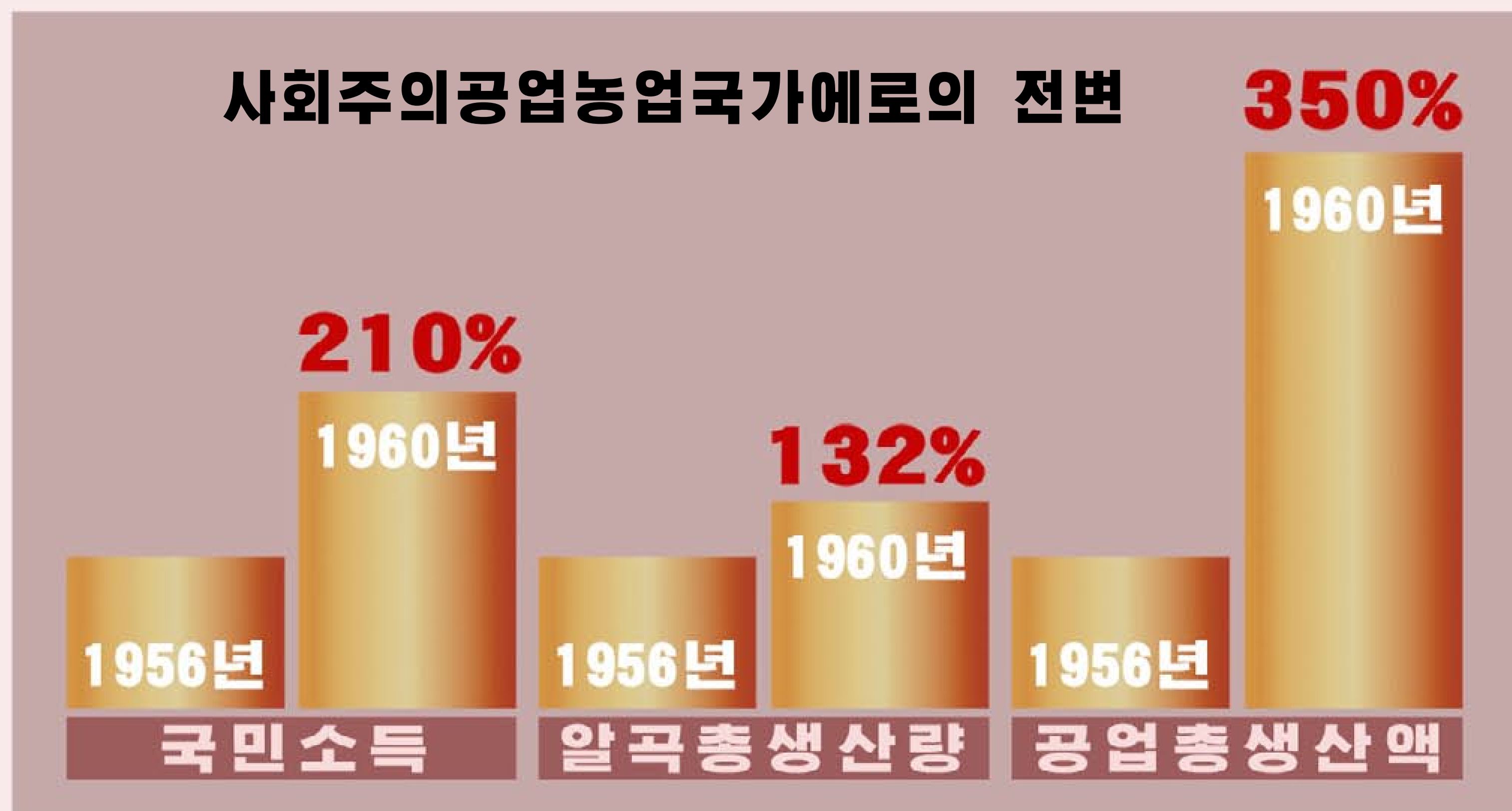
이날 제막식장에 나오시여 군중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제막식의 붉은 테프를 끊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작가들과 함께 천리마동상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수고를 높이 치하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렇게 되여 풍치수려한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조선인민의 영웅적기개를 시위하는 기념비, 폭풍우도 뚫고 헤치며 휘황한 미래를 향해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치려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을 과시하는 천리마동상이 일떠서게 되였다.

글 최광호



기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30여일만에 첫 뜨락또르를, 40일만에는 첫 화물자동차를 만들어냈다.



#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이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리용하면서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다.

시험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동해상 600㎞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였다.

시험발사직후 국방과학원은 이번 시험발사는 확신성있게 예견한바 그대로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치는 발동기지상분출시험과 시험발사과정을 통하여 개량형고체연료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였으며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 역시 재확증하였다고 밝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는 무기시험이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정책을 관철해나가는데서 중요한 공정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나라의 군사력강화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위협들을 억제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최우선적으로




평양과 린접한 황해북도 상원군의 명당로동자구일대에 수억t의 질좋은 석회석이 매장되여있다.

이 풍부한 원료자원에 토대하여 대동강의 지류인 상원천기슭에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건설된것은 1980년대 중엽이다.

년산 수백만t능력의 기업소가 일떠설 때 총투자액의 25%에 해당한 자금이 환경보호분야에 돌려졌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모든 생산공정들이 언제나 만가동, 만부하로 운영되여왔지만 기업소의 구내는 항상 정갈하고 높이 솟은 굴뚝에서는 연기를 보기 힘들다.

우거진 록음속에 새들이 날아예는 풍경이 사시절 펼쳐져있는 공원속의 공장과도 같은 자기 일터에 대한 이곳 종업원들의 애착심은 남다르다.

그들의 보다 큰 자부심은 생산의 주체화, 현대화가 훌륭히 실현된 기업소에서 일한다는것이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조업초기부터 중유가 아닌 무연탄에 의한 부유가소식소성방법으로 세멘트를 생산하고있다.

소성로의 착화도 중유가 아닌 국내의 갈탄으로 진행하고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내화물도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이 도입된 생산공정을 통하여 보장하고있다.

원료배합과 분쇄, 저장에 이르는 원료준비의 전 공정과 소성공정, 크링카분쇄공정 등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되여있고 중앙조종실에서 원격조종되고있는것으로 하여 현장에서는 로동자들을 거의나 찾아볼수 없다.

그러나 이룩된 조건과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자체의 기술력량과 생산토대를 부단히 강화하면서 굴지의 세멘트생산기지의 영예를 계속 빛내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다.

지난해에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쳐 완성한데 토대하여 련합기업소의 모든 단위들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올해의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중앙조종실에서는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조종을 더욱 짜고들어 제품들의 량과 질을 다같이 높이고있다.

소성직장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소성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질좋은 크링카를 생산보장하고있다.

조합원료, 분탄직장들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으며 세멘트직장에서도 새 설비들에 정통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면서 날마다 계획을 초과완수하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 삼청광산, 화천탄광 등 련합기업소의 산하단위들에서도 벨트콘베아, 굴착기와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모든 원료와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선진적인 련속공정조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경영활동을 보다 현대화하고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사진 송대혁
글 최광호




### 사회주의의학은 예방의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제3조에는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은 예방의학이다. 국가는 인민보건사업에서 사회주의의학의 원리를 구현한 예방의학제도를 공고발전시킨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조선의 보건제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의학적대책을 세워나간다는것이다.

중앙과 각 도들에 위생선전기관들이 꾸려지고 보건부문뿐아니라 근로단체, 출판보도기관들에까지 위생선전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다.

전국적규모에서 위생방역활동이 전면적으로, 계획적으로 추진되여오는 과정에 도시와 농촌에서 주민들의 생활 및 로동환경이 문화위생적으로 꾸려지고 전염병으로 인한 위협이 근원적으로 제거되고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담당의사가 있음으로 하여 질병을 사전에 막고 건강을 보호증진시킬수 있게 되였다.

조선에서는 해마다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류행성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있다.

### 무상으로 받는 의료봉사

무상으로 치료받는것은 조선인민모두가 지닌 법적권리이다.

조선에서의 전반적무상치료제도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시기에 시작되였다.

모든것이 파괴되고 국가의 인적, 물적자원이 전쟁승리에 총동원되여야 했던 이때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커다란 관심을 돌렸다.

병원과 진료소들, 의료기구 및 의약품생산기지들의 복구정비와 의료일군양성사업이 선차적으로 진행되여오는 속에 주체42(1953)년 1월부터 국가부담에 의한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였다.

공화국은 전후 사회주의건설이 줄기차게 추진되면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보다 강화되는데 따라 주체49(1960)년부터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였다.

그때로부터 조선에서는 성별, 나이, 신앙, 거주지, 직업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꼭같이 베풀어지고있다.

진단과 치료는 물론 실험검사, 예방접종 등이 모두 무료이며 료양치료를 위하여 료양소에 가고오는 려비까지도 국가가 부담한다.

치료받는 기간에 생활보조금까지 지불한다.

### 정연한 의사담당구역제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태여나서부터 일생동안 담당의사의 《시야》속에서 생활하고있다.

의사들은 자기가 맡은 매 가정세대, 모든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늘 관찰하고 예방치료대책을 세우며 일단 병이 생기면 제때에 치료하여 큰 병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의사담당구역제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기 전인 제1차 7개년계획(1961년-1967년)기간에 실시되였다. 그후 중앙에서부터 각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의료봉사망, 녀성의료봉사망, 고려의료봉사망 등 여러 의료봉사망이 정연하게 구축되고 의료일군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따라 의사담당구역제는 더욱 심화발전하였다.

또한 생산단위들에서는 의사들이 공장, 기업소의 직장을 담당하는 형태로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있다.

담당의사들이 직접 가정세대들과 로동현장들을 찾아가 근로자들의 로동 및 생활환경조건과 생활관습, 체질상 특성에 맞게 병예방대책도 세우면서 여러가지 의료봉사를 진행하고있다.

### 먼거리의료봉사체계

오늘 조선에는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져있다.

조선에서는 이 체계의 개발과 도입사업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적극 추진하여 주체98(2009)년부터 주체101(2012)년까지의 기간에 4개의 중앙급병원과 10개의 도(시)인민병원, 190여개의 시, 군인민병원과 10개의 도산원 등에 먼거리의료봉사망을 수립하였다.

이 봉사체계는 그후에도 계속 확대되여 전국의 각 도, 시, 군인민병원들 그리고 리인민병원들에까지 전개되였다.

이로부터 지방의 의료기관들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진단 등에서 문제점들이 제기되면 중앙병원들에 먼거리의료봉사를 요청하여 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정확하게 진행하고있으며 머나먼 산골군인민병원에서도 중앙병원의 관록있는 의사들의 방조를 받으며 종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어려운 수술들까지 성과적으로 진행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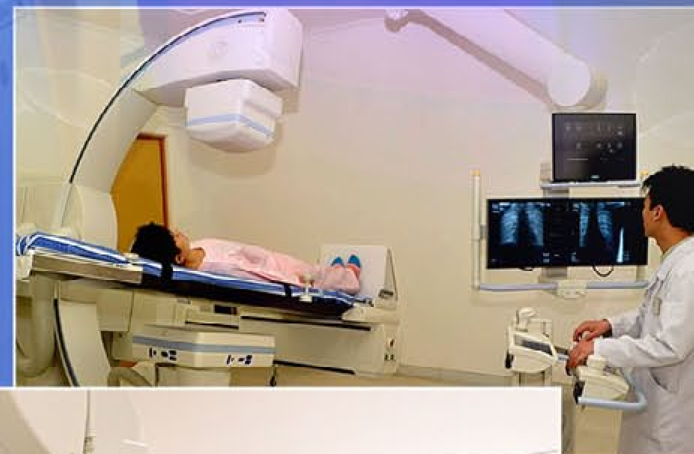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한 지방병원의료일군들에 대한 기술강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 의사들의 기술수준이 나날이 높아져 여러가지 만성질병환자들의 치료활동에서 커다란 개선을 가져오고있다.

사진 손희연, 리성익, 김성철, 안철룡
글 김선경

## 평양산원







주체69(1980)년 7월 개원
연건축면적 : 7만여㎡
침대수 : 1 900여대

3개의 기본호동과 3개의 보조호동으로 되여있는 평양산원은 산부인과분야의 전국적인 치료예방사업과 기술방법적지도, 과학연구사업과 림상교육 및 후비양성사업을 통일적으로 맡아하는 표준화된 산원으로서 여기에는 산과와 부인과, 애기과, 기능진단과, 구급과, 소생과 등 여러 전문과들이 있다.

평양산원에서는 주체110(2021)년 3월까지 510여쌍의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이 출생하였다.

셋이상의 태아를 가진것으로 확증된 임신부는 즉시 평양산원으로 후송되며 해산후 건강한 몸으로 퇴원할 때까지 이곳에서 의료상혜택을 받는다.

세쌍둥이, 네쌍둥이들은 몸무게가 4㎏이상 될 때라야 평양산원을 나서게 되며 그때부터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육아원에서 성장하게 된다.

나라에서는 남자아이들과 아버지에게는 은장도를, 녀자아이들과 어머니에게는 금반지를 기념으로 준다.





##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주체101(2012)년 11월 개원
연건축면적 : 8 500㎡
침대수 : 100대

녀성들의 유선질병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할수 있게 꾸려진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 과학연구기지이다.

여기에는 세분화된 과들과 여러개의 수술실, 치료실, 입원실 그리고 유선병연구실 등이 있다.

## 류경치과병원

주체102(2013)년 10월 개원
연건축면적 : 5 802㎡
설비수 : 118종 827대

3층으로 된 병원에는 기능진단과, 보존치료과, 소아치과, 보철과, 교정치과, 임플란트과, 약국, 어린이놀이장을 비롯하여 치과전문의료봉사에 필요한 조건들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다.

# 옥류아동병원











주체102(2013)년 10월 개원
연건축면적： 32 800여㎡
침대수： 300대

소아과부문의 종합적인 의료봉사기지이다. 병원에는 16개의 림상전문과들과 기능진단과, 화상진단과 등 보조부문과들, 4개의 수술장, 유전 및 키크기연구실 등이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병치료를 받으면서도 공부를 계속할수 있도록 중학교학습실, 소학교학습실, 유치원교양실들이 마련되여있다.

# 류경안과종합병원



주체105(2016)년 11월 개원
연건축면적： 11 800㎡
침대수： 110대

외래병동(4층)과 입원실병동(8층)으로 된 병원에는 10여개의 검사실들과 11개의 전문과들 그리고 5개의 수술장, 근 30개의 입원실이 있다.

다기능적이며 종합적인 안과전문의료봉사기지로서의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안경상점도 꾸려져있다.







# 고려의학종합병원

주체90(2001)년 4월 개원
연건축면적 : 14 560㎡
침대수 : 400대

각종 질병에 대한 고려의학적인 치료 및 예방과 과학연구 그리고 이 분야의 의료일군후비양성사업을 통일적으로 맡아하는 중심기지이다.

여기에는 외과병원, 내과병원, 침구병원, 외래종합진료소, 체질연구소, 고려기초의학연구소, 고려약연구소, 박사원 등이 있다.





# 보다 공평하고 건강한 세계를 건설하자

## Building a fairer and healthier world



# 평양지하철도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건설된 평양지하철도는 수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다

그러나 오늘 평양지하철도가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있는것은 단지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이여서만이 아니다.

평양지하철도는 처음부터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대미술박물관》으로 꾸려졌다.

웅장하고 시원한 지하철도역마다 역의 명칭에 따르는 주제들을 형상하는 대형벽화들과 조각, 부각품 등으로 장식되여있다.

개선역에는 나라를 해방하시고 조국인민들앞에서 개선연설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그이를 환호하는 인민들의 모습, 새 조국건설로 들끓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대형벽화들이 있다.






전승역에는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광장에서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신 벽화 《승리의 축포》가 있다.

사회주의조선의 발전로정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모습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있는 평양지하철도가 최근년간에 더욱 훌륭히 변모되여 시민들의 정서와 미감을 배가해주고있다.

지상역과 지하역들의 천정과 벽, 바닥과 기둥의 건축형식들이 보다 화려해지고 새로운 조명형식과 조명시설들로 밝고 부드럽게 처리되여 황홀경을 돋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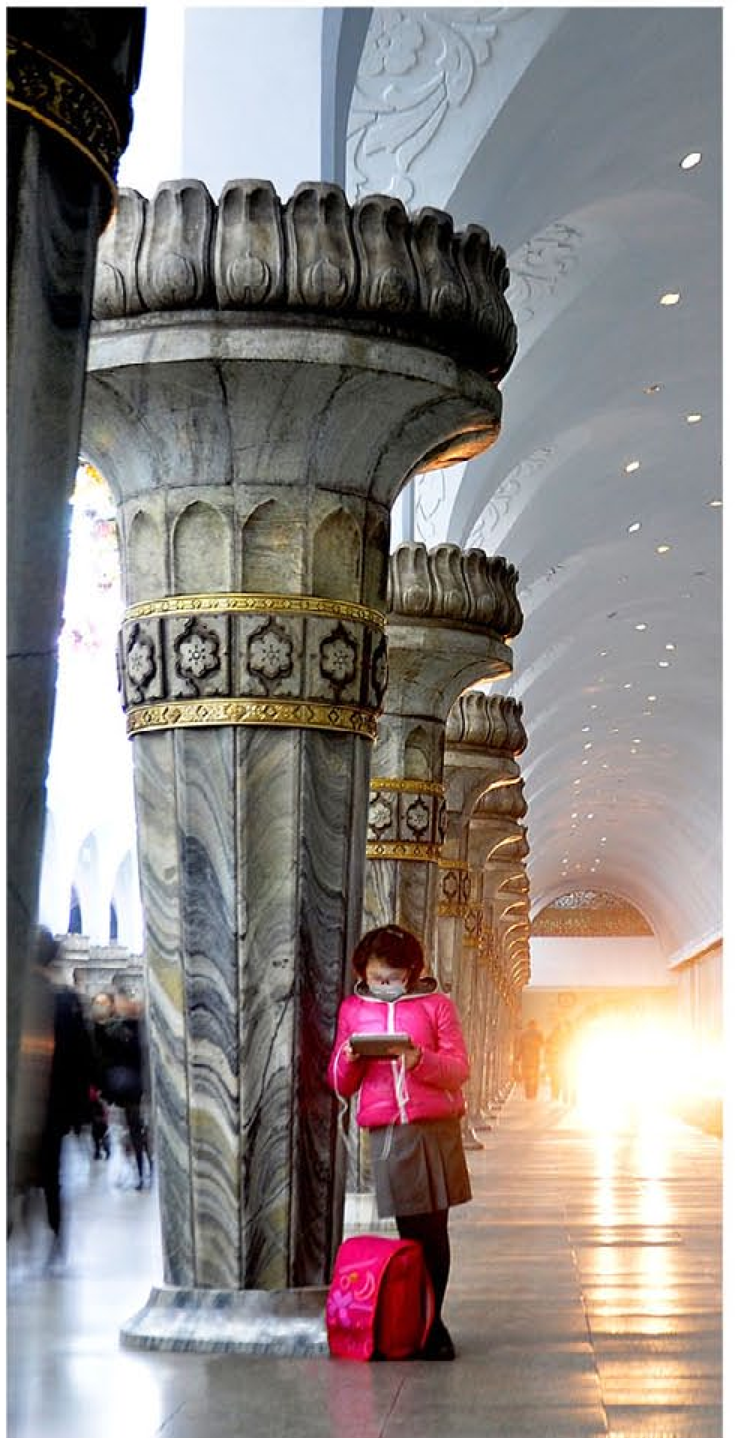
그와 함께 마식령스키장과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각지에 새롭게 일떠선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문명한 생활모습을 반영한 사진작품들이 역들의 지하홀들과 련결복도, 계단승강기구간들을 새롭게 장식하고있다.

려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들도 새롭게 갖추어졌다.

한해가 다르게 변모되는 조선의 모습이 지상과 함께 지하에도 펼쳐지는 속에 지하철도를 리용하는 시민들의 기쁨도 계속 커가고있다.

사진 리광성, 리명국, 리철진
글 림옥









## 산물고기료리로 소문난

#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신선하고 맛좋은 료리, 화려하면서도 이채로운 봉사환경으로 풍만한 정서를 안겨주는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누구나 즐겨찾는 봉사기지이다.







동평양지구의 명당자리에 특색있게 꾸려진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이 찾아오는 손님들로 날마다 흥성이고있다.

맑은 물 출렁이는 대동강기슭에 닻을 내린 대형유람선을 련상케 하는 식당에서 바라보느라면 창전거리와 모란봉의 청류벽 그리고 릉라인민유원지와 5월1일경기장 등이 한폭의 그림처럼 안겨온다.

3층으로 되여있는 식당은 연건평만 해도 2만 4 000여㎡에 달한다.

여러가지 형식의 식사실들이 꾸려져있는 1층에서 손님들의 눈길을 먼저 끌어당기는것은 철갑상어, 룡정어, 련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욱실거리는 20여개의 크고작은 실내못들이다. 못에는 200kg이나 되는 철갑상어들도 있다.

갖가지 고급어족들이 유유히 헤염을 치는 모습을 보는것도 류다른것이지만 그중에서 자기가 먹고싶은 물고기를 직접 고르는 재미 또한 이를데 없다.



본인이 선택한 물고기를 즉석에서 료리해주는 즉석봉사식사실들과 여러가지 물고기회국수와 수산물료리들을 봉사하는 국수식사실, 황금해식사실 등은 늘 만원을 이룬다.

초밥식사실, 민족료리식사실, 가족식사실, 동양료리식사실, 서양료리식사실, 봄맞이식사실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식사실들과 수산물가공품들을 판매하는 상점이 갖추어진 2층에서는 펄펄 뛰는 물고기로 만든 여러가지 수산물료리와 가공품들을 봉사한다.





이곳 식사실들에서 봉사하고있는 맛좋고 영양가높은 료리들은 그 가지수만 해도 300여개나 되여 손님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있다.

상점에서 판매되고있는 70여가지의 통졸임류들과 철갑상어훈제, 칠색송어훈제, 련어알젓, 밥조개가공살과 같은 가공품들은 모두가 국내의 수산물생산 및 가공기지들의 제품들이다.

부페트식사실과 커피봉사실, 원형식사실 등이 꾸려져있는 3층에서는 여러가지 수산물료리와 함께 청량음료들을 봉사하고있다.

야외에 꾸려진 여러개의 물고기못들과 이동식봉사시설 등도 식당의 특색을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주체107(2018)년 7월에 개업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한번에 1 500명의 손님들에게 봉사할수 있다.

사진 방은심, 손희연
글 한수영




# 건강장수에 좋은 놋제품

## Brassware Good for Health and Longevity

평양대성보석무역회사
Tel: 850-2-18111(ext)-341-8202 E-mail: dsposok999@star-co.net.Kp

# 새 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경제와 인간생활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였다.》

압록강기술개발회사 사장 한철호의 말이다.

현시기 인공지능기술은 20대첨단과학기술의 하나로 인정되고있다.

조선에서 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사업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였다.

그 개척자들이 바로 압록강기술개발회사의 연구집단이다.

설립초기부터 이곳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의 한 분야인 생체식별기술을 개척하는데 주되는 노력을 기울였다.

수년간의 탐구끝에 먼저 지문식별기술을 확립한 연구사들은 이에 기초하여 주체77(1988)년에는 첫 광전자식지문식별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이 개발제작한 여러 제품들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전시회들에서 여러차례 금상을 수여받았다.

그후 연구대상은 각이한 생체식별기술분야로 확대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곳 연구사들은 얼굴, 음성, 장문, 홍채 및 정맥식별기술분야를 개척하고 여러가지 첨단기술제품들을 련이어 개발해냈다.

이들이 개발한 얼굴식별열쇠, 심층신경망기술을 리용한 안전감시체계, 지능형IP카메라 등 여러 첨단기술제품들은 국제전시회, 전람회들에서 수차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최우수제품으로 선정되였다.

오늘 회사의 기술력량 및 경영활동조건은 창립초기에 비할바없이 향상되였다.

20대, 30대의 유능한 인재들이 포함된 수백명에 달하는 기술개발진이 꾸려져 회사의 발전을 선도하고있다.

이에 의거하여 회사에서는 현재 패턴인식기술, 보안기술, 장치제작기술 등 각이한 인공지능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있다.

회사는 오늘날 정보기술제품생산, 정보기술교류 및 봉사의 일체화를 실현한 첨단기업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회사는 20여개 나라의 권위있는 IT회사들과 공동연구, 공동개발을 진행하고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여러가지 완제품, 반제품, 핵심모듈개발과 관련한 주문봉사를 진행하고있으며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 50여개의 판매대리점들도 설립하였다.

회사는 앞으로 고성능, 고품질, 저가격의 첨단기술제품개발에 힘을 넣어 세계적인 정보기술제품시장 및 인공지능기술제품시장들을 더 많이 개척할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그 실현을 위해 회사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것이 인재중시, 종자중시, 투자중시의 원칙이다.

회사는 광업, 도로 및 호텔건설, 봉사업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상품무역, 중계무역활동도 적극화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장악하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노력은 보다 큰 성과들을 약속하고있다.

사진 리성익
글 김선명

# 생체식별기술제품

biometric identification products



흰눈덮인 백두산천지 / 사진 조선중앙통신

# 조종의 산 백두산



백두산의 해돋이 / 사진 홍훈

노을비낀 백두산천지 / 사진 리영남



백두산천지의 해빙기 / 사진 리명일

백두산천지의 봄 / 사진 김학명










백두산천지 / 사진 김영일







림은심

림정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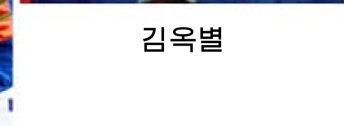

김수련


려은희


최효심


박 진 해


김옥별




김은주


김수정

# 녀자력기강자들을 키워낸 감독

김춘희감독이 키워낸 9명의 선수들은 2012년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64개의 금메달, 51개의 은메달, 19개의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기관차체육단의 력기감독이면서 국가대표팀 녀자력기감독인 김춘희는 성공한 감독으로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2중올림픽금메달수상자이며 세계선수권보유자인 림정심을 비롯하여 지난 2010년대에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조선의 녀자력기선수들은 거의다 그가 키워낸 선수들이다.

주체66(1977)년 8월 평양시 만경대구역의 한 사무원가정에서 셋째딸로 태여난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달리 체육을 즐겨했다. 소학교시절에는 속도빙상을 배웠고 중학교(당시)시절에는 중앙체육학원에서 륙상기술을 련마하였다.

그러던 그가 력기와 인연을 맺은것은 15살 나던 때였다.

당시는 조선에서 녀자력기발전의 초창기였다.

적성체질이라며 력기를 배울것을 권고하는 지도교원의 말은 춘희의 마음을 동하게 하였다.

하지만 부모들의 마음에까지 공명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종목을 앞으로 해내겠느냐 하는 리유에서였다.

그러나 일단 목표를 정하면 《변침》을 모르는 춘희는 부모의 동의없이 력기훈련장에 나섰다.

그후 부모들이 딸을 지지하게 된것은 그가 조선체육대학시절에 참가했던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당시)의 녀자력기경기에서 1등을 한 때부터였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춘희는 평양시의 한 청소년체육학교 력기지도교원이 되였다.

그때부터 그는 학생소년들의 운동회와 체육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들의 운동장 지어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까지 다 찾아다니며 선수후비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선발한 첫 제자가 림정심이였다.

그후 려은희, 림은심, 김은주등이 그의 지도밑에 력기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체육기술자료들을 탐독하면서 선수들의 나이에 맞는 훈련방법과 기술을 부단히 연구하고 그것을 선수들에게 적용해나갔다.

주체97(2008)년에 진행된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당시)가 력기지도교원으로서의 그의 실력이 발휘된 계기였다.



림정심선수가 녀자력기 48kg급경기에서 종합1위를 하였던것이다.

이해 12월 기관차체육단의 력기감독으로 된 김춘희는 자기가 키워오는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를 더 강화해나갔다.

그의 노력은 곧 빛을 보기 시작하였다.

림정심선수는 타이에서 진행된 주체98(2009)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 녀자력기 58kg급경기에 출전하여 종합2등을 하였다. 그는 주체101(2012)년 7월 영국에서 진행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녀자력기 69kg급경기와 주체105(2016)년 브라질에서 진행된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녀자력기 75kg급경기에서 1등을 하여 2중올림픽금메달수상자가 되였다.

려은희, 림은심, 김은주, 김수련, 최효심, 박진해선수들도 국제경기들에 참가할적마다 순위권을 놓지 않았다.

김춘희는 적성체질을 가진 선수후비선발과 과학적인 훈련방법의 도입 등 감독의 여러가지 사업방법들가운데서 선수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것을 제일 중시한다.

그는 선수들에게 늘 력기구간을 힘과 기술로 들기에 앞서 마음으로 먼저 들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군한다.

림정심이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도중에 부상을 당하였어도 마지막까지 경기를 진행하여 관중을 감동시킨것은 김춘희감독의 노력과 결코 떼여놓을수 없다.

선수들의 체질에 따르는 식사보장과 영양제공급, 휴식조건보장 등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헤아리고 마음쓰는 김춘희이다.

그의 품성은 선수들이 더욱더 분발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김춘희는 주체101(201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으로 된데 이어 여러차례 공화국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되였다.

선수가 금강석이라면 감독은 세공사이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이며 체육인가정의 주부이고 두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인민체육인인 남편 임용수도 김춘희와 같은 체육단에서 력기감독으로 사업하면서 늘 그를 방조하고 도와준다.

사진 손희연
글 김선경

# 조선의 정통무도 태권도




태권도는 조선민족의 기상과 넋이 깃들어있는 정통무도이다.

태권도의 《태》는 발꿈치, 《권》은 주먹, 《도》는 정신수양을 의미하는것으로서 높은 발기술과 손기술, 강한 정신교육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오랜 옛날부터 상무기풍이 높아 무술을 즐겨온 조선인민은 고구려(B.C. 277년-A.D. 668년)시기에 벌써 맨손으로 상대방을 치거나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손치기놀이인 수박을 중요한 무술훈련종목의 하나로 장려하였다.

고려(918년-1392년)와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에 이르러 수박은 발까지 쓰는 택견과 날파람으로 발전하였다.

국제태권도련맹의 초대총재였던 최홍희(1918. 11-2002. 6.)는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민족무술들의 기술동작들과 훈련방법들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과학적인 원리들을 도입하여 1955년에 《태권도》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1966년 3월 22일에는 이를 세계적범위에로 보급하기 위하여 국제태권도련맹을 창설하였다.

태권도의 기술구성체계는 기본동작, 틀, 맞서기, 호신술, 단련 등으로 되여있다.

기본동작은 틀, 맞서기, 호신술들에서 리용되는 하나하나의 개별기술동작들을 의미하는데 모두 3 200여개이다.

틀은 방어와 공격, 옮겨디디기와 돌기, 뛰기 등 기본동작들과 기술적요소들을 일정한 리치와 뜻을 가지고 정해진 자리길을 따라 변화되는 정황에 맞게 가상적인 상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체계화한것으로서 총 24개이다.

맞서기는 기본동작과 틀을 습득하면서 배운 공격과 방어, 기술동작들을 변화되는 정황에서 실지 움직이는 상대에게 적용하는것을 의미한다.

호신술은 사전준비가 없이 불의에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때 림기응변으로 정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수법들과 방법들의 총체이며 단련은 강한 정신수양과 육체적 단련과정을 뜻한다.

태권도의 기술급수체계는 수련생들을 위한 10개의 급과 전문가들을 위한 9개의 단으로 구분되여있다.



고구려시기 안악3호무덤 앞칸 동쪽벽에 그려진 권법그림



민족고전 《무예도보통지》



2017년 유네스코 제39차 총회에서 받은 민족고전 《무예도보통지》의 세계기록유산등록증

급과 단에 따라 24개의 틀가운데서 지정된 틀만을 수행하도록 되여있는데 수련생들은 10급에서부터 1급으로, 전문가들은 1단에서부터 우로 올라가며 급수가 정해진다.

1단부터 3단까지의 급수를 가진 전문가는 부사범, 4단부터 6단까지의 소유자는 사범, 7단, 8단의 소유자는 사현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 태권도



국제태권도련맹의 초대총재였던 최홍희(1918. 11-2002. 6.)는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민족무술들의 기술동작들과 훈련방법들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과학적인 원리들을 도입하여 1955년에 《태권도》라고 명명하였다.

1966년 3월 22일에는 이를 세계적범위에로 보급하기 위하여 국제태권도련맹을 창설하였다.






9단소유자에게는 사성이라는 가장 높은 칭호를 준다.

1982년 국제태권도련맹이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옷색갈을 상징하여 흰색으로 제정한 태권도복은 저고리와 바지, 띠로 되여있는데 매 유급자는 띠의 색갈, 유단자는 저고리와 바지에 두른 검은선의 유무와 검은색띠에 단수를 표기한 로마수자에 의해 구별된다.

오늘 태권도는 세계적범위에서 널리 보급되고있다.

조선의 수도 평양에는 태권도의 발전력사를 보여주는 태권도성지관과 태권도의 발전을 위한 종합체육기지인 태권도전당이 있다.

평양에는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이 있으며 각 도(직할시)들에도 태권도선수단과 함께 태권도교원들을 양성하는 태권도학원이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태권도소조들이 전국각지의 학교들에서 활발히 운영되고있다.

소학교학생들 지어 유치원어린이로부터 로인에 이르기까지 태권도를 사랑하며 즐겨하는 기풍이 더욱 확립되여가는 속에 전국 및 지역적인 태권도경기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조선태권도위원회는 태권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가는데 맞게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 여러 나라 태권도인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진행하고있다.

해당 민족협회들의 요청에 따라 조선은 태권도시범단과 능력있는 태권도사범들을 파견하고있으며 강습과 래왕경기도 자주 조직하고있다.

지금 수천만명의 태권도인을 망라하고있는 국제태권도련맹에서는 2년을 주기로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청소년 및 로장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대륙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진행하고있다.

지금까지 21차의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가 진행되였다.

사진 정문일
글 박병훈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개성의 력사유적들

수도 평양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60㎞되는 곳에 위치하고있는 개성시는 1 100여년의 력사를 가진 도시로서 력사유적이 많다.

지금까지 백수십개의 력사유적들이 조사등록되였는데 조선민족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918년-1392년)시기의 유적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것은 개성이 근 500년에 달하는 고려왕조의 수도였기때문이다.

이 일대는 기온이 비교적 온화하고 례성강과 림진강류역의 넓은 충적벌을 가지고있어 농업활동에 유리할뿐아니라 조선서해와 가깝고 큰강들을 끼고있어 수상교통조건도 좋다. 지리적으로도 조선반도의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내륙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있다.

더우기 개성은 고려태조 왕건(877년-943년)의 고향이고 지지기반이였다.

9세기말 후기신라가 각곳에서 일어난 농민봉기의 혼란속에서 자기의 실제적인 지배력을 잃고있을 때 개성지방에서는 왕건의 가문이 서서히 세력권을 넓히고있었다.

그러던중 왕건의 아버지인 왕륭은 후삼국(후백제, 태봉국, 후기신라)의 하나였던 태봉국의 국왕 궁예(?년-918년)에게 개성의 송악산기슭에 성을 쌓을것을 제의하였다.

그것이 수락되여 당시 20대 홍안의 장수였던 왕건의 지휘밑에 898년에 송악산의 서남쪽에 발어참성이라는 새 성이 건설되고 왕건은 성주가 되였다.

개성은 이때부터 번성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후 918년에 이르러 왕건은 궁예의 폭정에 반기를 든 군대와 인민들에게 의거하여 정변을 일으키고 새 나라를 세웠으며 다음해에 수도를 철원(강원도의 지방이름)에서 개성으로 옮기였다.

고려는 수공업과 상업이 매우 발전하였으며 개성은 동아시아의 무역중심지의 하나였다.

조선의 국제명칭인 《코리아》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났다.

개성의 력사유적들은 당시 조선민족의 문화수준을 깊이있게 고찰할수 있게 한다.

그중에서도 개성남대문, 왕건왕릉, 고려성균관, 개성첨성대, 선죽교, 표충비를 비롯한 12개의 유적들은 고려의 문화와 력사를 증명하는 대표적유산들로서 주체102(2013)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사진 박창복
글 리진범




## 남대문

1391년-1393년에 개성성의 내성을 쌓으면서 세운 남문으로서 당시의 7개 성문중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루이다.

여기에는 조선의 5대명종의 하나인 연복사종이 걸려있다.



## 연복사종

1346년에 만들어 연복사(고려의 수도 개성에 있던 절)에 달았던것인데 1563년 연복사가 화재를 입자 남대문으로 옮겨왔다.

종의 크기는 아구리직경 1.9m, 높이 3.3m, 두께 23㎝이며 무게는 약 14t이다. 종의 아구리테두리를 매우 률동적인 굴곡으로 처리하고 그 테두리를 따라 물결을 타고 흐르는 모습으로 물고기, 룡을 비롯한 여러가지 짐승을 새기였다. 연복사종은 겉면장식들이 세련되여 우아하고 장중할뿐아니라 그 소리 또한 아름답고 맑아 소리가 100여리밖까지 퍼졌다고 한다.

동합금으로 주조된 연복사종은 우리 나라 5대명종의 하나로서 당시 고려사람들의 금속주조술과 금속공예술의 높은 경지를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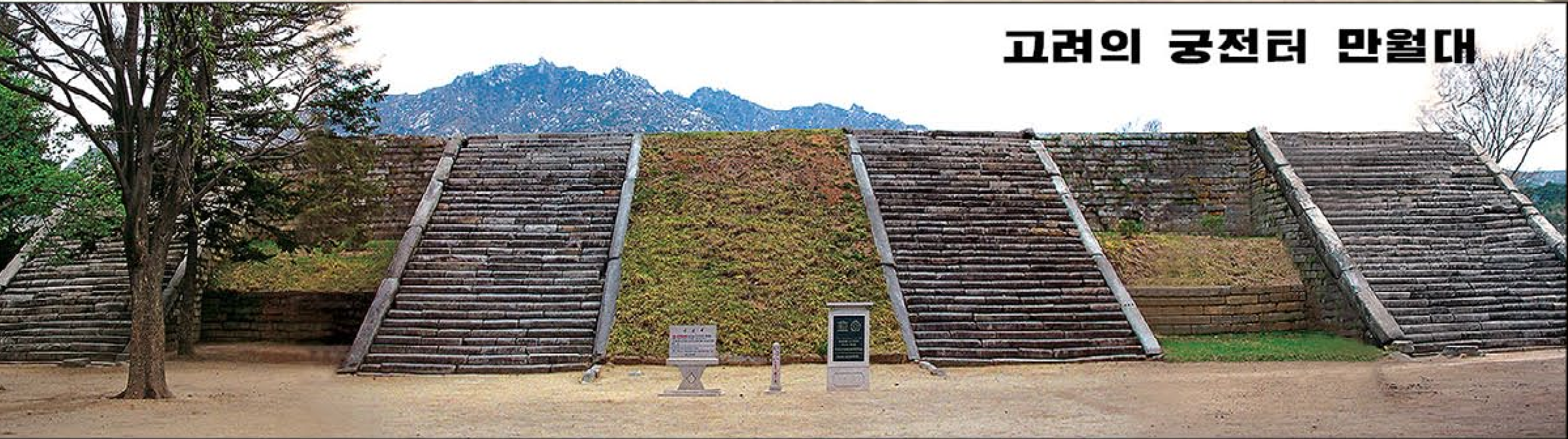

## 고려태조 왕건왕릉

왕건왕릉은 개성시 해선리에 있다.
943년에 건립되였으며 주체83(1994)년에 개건하였다.





경효왕(고려의 31대왕)릉



고려의 궁전터 만월대



고려태조 왕건의 화상




# 세계최초의 대학 고려성균관

고려는 992년에 국자감이라는 교육기관을 내오고 그안에 6개의 학과를 두어 높은 실무적자질을 갖춘 관리들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국자감은 1298년에 성균감으로, 1308년에 성균관으로 이름을 고쳐부르게 되였다. 세계대학발전력사상 가장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고 할수 있는 고려성균관은 당시의 교육과 문화 발전수준을 느낄수 있게 하여준다.

고려에서는 958년에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된 후 1392년까지의 기간에 18 400여명이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대부분이 성균관출신들이였다.

그들중에는 애국적명장들과 관료들, 당대의 유명한 학자들 그리고 과학자, 발명가들도 있었다.






## 개성성

개성성은 고려시기 수도방어체계에서 기본요소를 이루고있었을뿐아니라 도시형성과 발전, 그 관리운영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궁성은 919년에 축성되였으며 외성은 1009년부터 1029년까지 축성되였는데 그 둘레는 23㎞에 달한다.

내성은 1391년부터 1393년까지 축성되였다.

둘레는 11.2㎞이다.











## 개성첨성대

축대의 높이 2.8m, 한 변의 길이가 2.6m인 첨성대는 고려초에 왕궁건설과 함께 세워졌다.

오랜 기간 천문관측에 리용되다가 고려의 멸망과 함께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력사책인 《고려사》천문지에는 1105년부터 고려 말기까지 50여건의 태양흑점을 관찰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가 유럽보다 수백년이나 앞서 태양흑점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고 연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1281년에는 관측기구들을 만들어 태양과 달의 운행을 측정하고 그 위치를 연구하게 하였다는 자료도 있다.




## 선죽교

고려 초기부터 있은 오랜 다리로서 고려 말기의 봉건관리이며 유학자인 정몽주가 고려충신으로서의 절개를 지키다가 피살된 장소인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진 유적이다. 다리의 본래이름은 《선지교》였다.

1392년 4월에 정몽주가 피살된 후 그가 죽은 자리에서 참대가 돋아났다고 하여 다리이름을 《선죽교》로 고쳐불렀다고 한다.

## 표충비

표충비는 후세에 정몽주의 충절을 찬양하여 세운 두개의 비로서 그 크기와 예술적형상수준이 조선의 옛 비들중에서 손꼽히는것으로 전해진다.







정몽주의 화상

## 숭양서원

숭양서원은 고려충신 정몽주의 집자리에 세운 사립교육기관이다.

지금의 건물은 1573년에 세웠다.

처음에는 문충당(문충은 정몽주의 시호)이라고 하다가 1575년부터 숭양서원이라고 고쳤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서원의 전형적인 배치형식과 건축구조를 오늘까지 보존하고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 조선비단제품

## Korean Silk Products



부드러운 느낌
특이한 소독, 해독작용…

보기에도 아름답고 피부에 닿는 감각이 좋아 입으면 누구나 절로 기분이 상쾌해지는 비단옷은 무더운 여름에는 더운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추운 겨울에는 몸온도를 보존하여주며 특이한 소독작용, 해독작용으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각종 질병들을 치료하는 《장수옷》입니다.





13606-218069

# 더욱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래일을 위하여

For the future of our capital which will become more beautiful and magnificent



내곳 : © 조선화보사 2021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